
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4px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설 명 자 료</div>				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위원회
 금융감독원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blue; 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보도</div>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blue; 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배포 후 즉시</div>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blue; 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배포</div>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blue; 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">2021.11.23(화)</div>	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
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책 임 자</div>	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송 병 관(02-2100-2690)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담 당 자</div>	허남혁 사무관(02-2100-2695)
	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김 은 조(02-3145-7700)		김철호 부국장(02-3145-7702)


제 목 : 한겨레의 11.23.일자“ 셀트리온 분식회계 조사 3년  
금융당국, 제재안 논의 돌입”기사에 대한 입장

## 1. 기사 내용

- ☐ 한겨레는 “셀트리온그룹의 분식회계 논란이 감리위원회의 심의  
착수로 3년만에 금융당국의 심판대에 올랐다”라고 언급하면서,
- “3대 쟁점으로 ①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구매한  
의약품(재고자산)의 가치하락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, ②셀트리  
온이 계열관계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제약에 판매한  
의약품을 매출로 인식한 것이 적절한지, ③감리가 3년이나 걸린  
것이 이례적”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

## 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 처리 절차가 진행중으로 일부 기사  
내용은 사실과 다르며,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 
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지착물 자유이용허락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변인 <a href="mailto:prfsc@korea.kr">prfsc@korea.kr</a>	 행정부리청 콜센터
--	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